

2018년 3월 20일, 표선면 세화2리 세화2리경로당, 문순덕(김은정·정이슬) 조사.
오순옥(여, 1933년생, 표선면 세화2리)

- 줄거리: 옛날 어떤 사람이 산을 지나다가 날이 어둡자 산 속에서 목게 되었다. 쉬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귀신과 할아버지귀신이 제삿집에 가는 것을 보고 궁금하여 몰래 따라갔다.

제삿집에 간 할머니귀신은 밥그릇에 머리카락이 있는 것을 보고 제사 음식에 정성을 드리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는 손자를 불 속에 던져 버렸다.

[제보자] 옛날도 우리 할아버지가 큰 정시라났는디 구신 나거들랑 이 깨물어서 춤 받고 손바닥을 탁탁 치믄 그런 거 었어진다 해. 걸영만 덩겇거든. 옛날에 차도 없고 뭐 허니까 걸영 갈 시엔 이제 우리가 시에 돌기와를 받았거든. 먹고살자 하면 저 시에 가그넝 물건 행 가지고 돈을 만들어와야 먹고 살았지.

시에 걸영 가젠 하믄 위험하곡 헛는디 가당 날 저물고 하믄 우리 할아버지 옛날 곧는디 날 저물건 큰 산에 가서

“주인장 계십니까? 질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유숙헛다 가겠습니다.”

그렇게 말씀드리면 거기 강 묵어도 탈이 없다고. 거기 간 누원 자는디 어떤 꼬부랑할망이 몽덩이 짚으고 산에 걸어왔더라고.

“하르방, 제사 먹으레 아이 가젠?”

“어, 가고말고. 이디 손님들 오라네 잼어.”

손님들?라 여기 자다가 밝거들랑 갓이렌. 경 해동 늙은 할망이 데령 하르방이 렌 데령 가능 거 보난 하르방이 막 젊거든. 젊은디 할망은 꼬부랑 몽덩이 짚영가.

“제사 먹으레 갑시다.”

행 돌리가 갓는디 유숙헛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쫓아간. 마을을 들어갓 인디 쳇집이 들어가더라고. 영감하고 젊은 남즈하고 늙은 할망하고. 들어간 이젠 어른은 오섯어. 뒷날은 밝으니까 그 집을 좇앙 간 거라. 언치낙 이디 제사 아니었냐고. 시아방 제사니까 넘어났다고.

그러니까 이젠 ‘아, 옳구나.’ 헨디 그디 이제 그 할망이 밥사발에 머리끄락을
하나 놔네 메를 지어서 올렸더라고. 그 할머니가

“에잇, 나쁜자식들 께쌌다고.”

옛날은 부뚜막이렌 헹 마루에 흙땅에 검질 깔앙 눕고 자곡 하는 디서 불을 나
무 불을 해당 살랏어. 그디 밀려두고 손지 불 출리렌 하난 할망은 산에 가분 거
라. 가부니까 뒷날은 어멍이 아기 돌앙 병원에 가고, 아방은 여기 잇노렌 하멍
제사 넘어난디. 산에 가네 그 할망이 하는 말씀이

“에이, 못똔 것들 나쁜새끼들. 나 밥사발에 머리끄락 들어노난 불에 들이쳐동
왔지.”

나 옛말은 끝도 한도 없어.

- 핵심어: 할망(할머니), 하르방(할아버지), 유숙, 제사, 조상, 손지(손자), 마을, 머리카락